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完〉

梁	啓	超 著
沈	暘	俊 譯

第5章 春秋 및 그 三傳

春秋, 이 책은 孔子가 지은 것으로 별로 問題 없는 듯하다. 孟子가 말한, 『孔子가 두려워하여 春秋를 지었다』 『孔子가 春秋를 짓자 亂臣 賊子들이 두려워 했다.』 라는데 대해서는 現在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反證을 찾아 이 說을 否認하지 못했다. 스스로 어떠한 意義를 가지고 門生에게 口授하고 그 뒤에 가서는 代代로 傳해 내려 오다가 文章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漢初에 몇 部가 나왔고, 現存한 것으로는 公羊傳과 穀梁傳 두 種이 있다. 西漢 때에 左氏春秋의 一部를 또 發見하였다. 劉歆은 이것도 春秋를 解釋한 것이라 말 했으므로 後人들은 이를 합해서 三傳이라 불렀다. 우리도 여기서 함께 말하고자 한다,

1. 春 秋

春秋는 비록 孔子가 지은 것이지만 孔子以前에 「春秋」란 名詞가 있었는가? 또 이러한 것(책)이 있었는가? 國語 晉 悼公 12년에 司馬侯가 말하기를, 『羊舌肸이 春秋를 배웠다』라 했고 左傳 魯昭公 2년에 『韓宣子가 와서……太史氏에게서 책을 보았는데 易象과 魯春秋가 있었다』라는 記錄이 있다. 墨子 明鬼篇에는 周의 春秋와 燕의 春秋, 齊의 春秋, 宋의 春秋를 引用하였다. 孔子以前에 周·晉·魯·燕·齊·宋 諸國에도 모두 春秋가 있었으며 그 나머지 나라도 아마 있었을 지도 모른다

魯國은 從前에 이미 春秋가 있었다. 孔子는 또한 『魯史로 因해서 春秋를 지었다』는데, 그럴 필요가 어디 있었던가 아마 從前의 春秋는 體裁가 다르고 文辭도 좋지 않고 意義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孔子가 한번 마음을 써서 改造하였을 것이다. 墨子 明鬼篇에 引用된 이야기는 某國의 春秋에서 나왔다는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國語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모든 事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있으며 篇幅도 많았다. 그러나 孔子의 春秋는 이와 같지 않다. 孔子의 春秋 文章은 簡潔했으며 年代도 明瞭한 것이니 아마도 一種의 創作으로서 以前에는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이 첫째 이유이다. 公羊傳 魯莊公 7년에 『수정하지 아니한 春秋

에서는, 「두 별이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온다.」라고 한 것은 君子(孔子)가 수정하기를, 「星震은 비와 같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수정치 아니한 春秋와 수정한 春秋는 같지 않다. 이것이 둘째 이유이다. 春秋繁露의 名號率을 깊이 살피고서 春秋魯僖公 61년에 있는 『春王正月 戊申朔에 宋五에서 큰 隕石이 내렸다.』 『이날 六鷁 무리가 宋都를 날아 지나갔다』고 하는 一段의 妙筆을 극진히 추켜 올리고 있다. 비록 수정치 아니한 春秋의 原文이 引用되지는 않았으나 孔子가 筆削은 꼭 조심한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셋째 이유이다. 그러므로 史記 孔子世家에는 『孔子가 在位하던서 文辭를 聽訟할 때 남과 같이 했지 혼자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春秋에 이르러서는 덧붙일 것을 덧붙이고 깎을 것을 깎았으므로(筆則筆, 削則削)子夏의 무리들은 한마디도 보태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當然한 實情일 것이다.

最近 先師 康南海선생은 春秋大義微言考를 지으면서 一種의 冒險的 計劃을 세우셨으니 公羊傳에 있는 「무엇이다」(何也) 「무엇으로 쓰다」(何以書)라는 말에 근거하여 수정치 아니한 春秋의 原文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推定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孔子의 春秋와 比較해 보려고 하셨다. 『元年 春 王正月』이라는 말은 선생(康南海)의 말씀에 의하면 수정치 아니한 春秋는 『一年 春 一月』이라는 것이다. 理由는 何休의 註에 『一을 고치어 元으로 하였으니 여기서 元은 氣이다』라고 하였으므로 原文은 『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孔子는 一을 고치어 元으로 한 것이다. 그 나머지도 類推할 수 있다. 모두 公羊傳에서 의문을 이르킨 것은 곧 고쳐야 했던 이유를 따라서 수정치 아니한 原文을 推測할 수 있다. 이러한 作業은 꼭 興味있는 일이다. 다만 수정되지 아니한 春秋는 亡佚했기 때문에 선생의 이러한 計劃이 成功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對證하기가 적 어렵다.

孟子는 말하기를 『世道가 衰하여 詐說과 暴行이 있게 되었으니 臣이 그 임금을 弑害하는 일이 있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弑害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孔子는 두려워서 春秋를 지었다. 春秋란 天子의 일이다. 孔子가 春秋를 이루자 亂臣·賊子가 두려워 했다. 史記 孔

子世家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孔子는……이에 史書에 因하여 春秋를 지었다.……그 文辭를 要約하였으나 指示함이 넓었다. 그러므로 吳楚의 임금들은 스스로를 王이라 일컬었으나 春秋에서는 이를 내리 깎아 「子」라고 하였으며 「踐土(譯註:春秋 鄭의 地名)의 모임」은 實은 周의 天子를 부른것인데 春秋에서는 이를 꺼려 「天王이 河陽에 巡狩하셨다」고 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 處世의 깎아 내림의 뜻을 헤아려서 後에 王이 이를 들어 넓히어 春秋의 뜻(義)이 行해진다면 天下의 亂臣賊子들이 두려워 할 것이다.』孔子는 春秋에 의해서 그의 政治思想·哲學思想을 發表하였다 함은 歷代로 儒者들이 다 같이 믿는 것이다. 孟子는 또한 말하기를, 『晉의 乘(歷史), 楚의 檇杻(歷史) 魯의 春秋(歷史)가 하나이다. 그 일은 齊桓·晉文이고 그 글은 歷史이다. 孔子가 말하시기를 「그 뜻은 某가 절취한 것이다」라고 했다. 春秋繁露·史記에서는 모두 『春秋의 글은 數萬이고 그 指數는 數千이다』라고 했다. 孔子가 春秋를 지은 것은 뜻(義)을 위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數千의 뜻(義)은 물론 春秋의 本文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弟子들에게 口傳을 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門下生들은 代代로 이어 傳해 내려오다가 西漢 中葉에 이르러 먼저 公羊傳과 穀梁傳은 文字化 되었다. 그 두 傳이 孔子의 原意를 잃었는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保證하기 꼭 어렵다. 그러나 그 중 아무래도 절반은 孔子以下 代代로 口傳되어 온 것이다. 또한 自然히 漢儒가 孔子의 標準에 根據하여 自意로 推定한 것도 있겠는데 이것은 모두 孔子의 原意라고 말할 수는 없다. 現在 公羊傳, 春秋繁露, 何休의 公羊註에서 말하는 春秋大義를 包含한다면 아마 또한 數千이나 될 것이다. 이 數千의 뜻(義) 가운데 얼마쯤이 孔子의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는 말하기 꼭 어렵다. 그렇지만 最少限 一部分 乃至 절반은 公羊家의 見解에 依한다면, 모두 完全히 孔子의 것이다.

春秋의 大義는 일단 論外로 치자. 그런데 本文은 뒤에 첨가 되었을 것인가? 現存의 左氏·公羊·穀梁 三家의 經文은 大體로는 같으나 部分的으로는 差가 甚하다. 예컨대 맨 끝 페이지를 보라. 左氏傳은 魯哀公 16年이고 公羊·穀梁은 魯哀公 15年으로 벌써 같지 않다. 左氏傳은 孔子가 16년에 죽었기 때문에 孔子의 죽은 일을 加하고 싶었기에 二年이 많아진 것이다. (原註: 左氏傳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左丘明이 續經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續經했는지 하는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말하고자 한다.) 最少限 이 二年은 孔子의 作이 아니다. 孔子의 春秋는 「西쪽으로 巡狩하다가 기린을 잡았다」하는데 이르러 붓을 놓은 것은 깊은 뜻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가지이다. 또 公羊·

穀梁에서는 『襄公 21年 11月 庚戌에 孔子가 낳다』는 記錄이 있는데 이것은 孔子의 記錄이 아닌 것이 當然하다. 그는 「卿」이 되지 않았으므로 그의 生死가 記錄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가 自己의 生死를 記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두가지이다. 이미 二年이나 一條를 덧붙이고 있었으니 이 밖에 더 첨가 했는지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려울다. 아마 얼마쯤은 첨가 했을 것이다. 以上은 첨가한데 대한 말이다.

春秋는 제대로 갖추어졌는가? 빠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問題이다. 司馬遷·董仲舒가 말하기를 『文은 數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勿論 經文의 字數이다. 그러나 春秋의 今本은 다만 一萬八千餘字뿐이다. 數萬이라고 할 수 없다. 董仲舒는 春秋를 傳한 사람이고 司馬遷은 春秋를 골들히 공부한 사람이니 허튼 말을 할 까닭이 없다. 「萬」字는 또한 잘못 쓰여진 글자도 아니다. 그러면 春秋에 빠진 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斷定할 수도 있다. 또한 恒常 『正月』 『三月』이란 經文 아래는 하나의 事項이 記錄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事項이 없다면 무엇하러 月分을 記入했는가? 解釋者들은 『春秋는 비록 事項이 없더라도 年初에는 반드시 적어 둔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例가 없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春秋에 빠진 것이 있다면 解釋하기가 어려울다. 언제 빠졌는가? 秦始皇의 焚書 때에 빠졌다면 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董仲舒·司馬遷이 무엇때문에 『文이 數萬字로 이루어 졌다』고 말했는가? 漢代에 빠졌다면 漢代는 經學이 發達되었을 때이니만치, 董仲舒가 볼 수 있었던 것을 何休가 어찌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敢히 春秋는 꼭 그만큼 많이 빠진 것이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問題를 提起하여 많은 사람이 研究할 계제는 줄 수 있다. 이것이 빠진데 대한 이야기다.

年代 問題는 앞에서 이미 孔子의 作이라는 것을 말했으니 당연히 孔子 時代의 것이다. 그러나 孔子가 匹夫(編)책이 언제 비로소 完全히 이루어진 것인가. 從來의 많은 『麒麟을 잡는 대목에서 붓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春秋는 魯哀公 14年 봄, 즉 BC481년에 책으로 이루어졌다(原註: 이것은 公羊家의 말이다) 또 一說은 孔子가 麒麟(譯註: 이것은 想像의 動物로 giraffe가 아님)을 잡는 祥瑞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春秋를 지었다는데, 이것은 꼭 믿기 어렵다. 哀公 16年 4월에 孔子가 죽었는데 이것은 麒麟을 잡은지 2年 뒤의 일이다. 二年동안에 이 책을 지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魯史以外에 얼마나 많은 史料를 蒐集했는지는 確實히 알 수 없다. 그러나 公羊傳疏에서는 緯書를 引用하여 말하기를, 孔子는 子夏등 14인에게 시켜 120

國의 寶書를 求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비록 確信할 수 없지만 春秋에 魯國以外的 史實을 記錄했으니 당연히 단지 魯史만 依據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外國史의 史料도 蒐集했을 것이다. 비록 반드시 120餘個의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얼마간은 있었을 것이다. 短期間에 이를 잘 整理하여 二年間에 책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比較的 「기린을 잡자 붓을 던졌다」는 說을 믿는게 좋을 것이다. 이보다 (譯註: 붓을 던진 때) 몇 年 前부터 執筆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느낀바가 있기 때문에, 또는 老年(71歲)이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일로 因해서 붓을 던지고 다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相差가 限定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春秋는 여기서 마치려 한다.

2. 左氏傳

三傳이 있지만, 西漢 때에는 다만 三傳만 盛行되었다. 漢武帝가 公羊博士를 세웠고 元帝는 穀梁博士를 세웠고, 哀帝때에 劉歆이 비로소 左氏博士를 세울 것을 請했으나 諸儒들이 이를 反對했으므로 平帝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成功했다. 西漢시대에 一般적으로 春秋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左氏는 春秋를 傳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劉歆은 傳文을 引用하여 經을 解釋하면서 拙力으로 表彰했으므로 諸儒들과 더불어 甚한 싸움을 했다. 東漢 以後에 가서 左氏의 價値가 하루 公羊 穀梁에 比하여 높아졌다. 이제 左氏를 먼저 말 하겠다.

西漢末의 諸儒와 劉歆一派와의 싸움을 後人들은 『今文·古文의 論爭』이라고 하였다. 諸儒들은 今文家요, 劉歆은 古文家였다. 이것이 畢竟 經學界에 두 個의 派閥이 形成되어 二千年 間의 一大 公案(事項)이 되었다. 뒤에 다른 今文家를 左氏와 劉歆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시기하고 疑心하였다. 어떤 이는 春秋左氏傳이 온통 劉歆으로 말미암아 偽造되었다 하고, 어떤 이는 左氏의 本名은 春秋이지 春秋傳은 아니라 하고, 어떤 이는 本來에는 다만 「國語」가 있었는데 劉歆이 國語로부터 左傳을 作게냈다』라고 하고 淸나라 儒家들은—莊存. 劉申受로부터 康南海선생과 崔適에 이르기 까지 이 問題에 대해서 各各 深奧한 研究를 하였다. 지금 그들의 著作은 引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나의 見解로는 左氏와 國語와의 體裁와 文章은 모두 틀리며 서로 作게낸 痕跡이 없다. 戰國부터 西漢末까지 左氏를 引用한 것은 한 두 책이 아니었다. 左氏는 劉歆이 偽造한 것이거나 國語에서 作게어낸 것이 아니라 함은 이로써 알 수 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첫째, 左氏는 어느 때 누구의 作인가?

둘째, 책이 만들어진 뒤 어떤 사람이 增竄한 일은

없는가?

左氏의 作者는 從來 孔子의 弟子 左邱明이라고 認定했다. 劉歆은 다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左邱明의 好惡은 聖人과 더불어 같으며 親히 그 夫子(孔子)를 봤다. 公羊·穀梁은 70弟子의 後人이다. 傳해 들은 것과 親히 본 것과는 그 詳略이 같지 않다』 그러나 左邱明은 姓이 左요, 이름이 邱明인가 그렇지 않으면 姓이 左丘이고 이름이 明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左가 姓이고 丘가 名인 사람만 있을 뿐 左邱明이란 사람은 없었는가? 모두 斷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상관치 말자. 실사 左邱明이란 人物이 있다고 認定하더라도 또한 問題가 있다. 論語에는 孔子가 말씀 하기를 『남의 歡心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巧妙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과 지나치게 恭遜한 것은 左邱明이 이를 羞恥스럽게 여겼다. 怨恨은 숨기고 其人과 벗하는 것은 左邱明이 이를 羞恥스럽게 여겼으며 丘도 또한 이를 羞恥스럽게 여겼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투는 선생이 學生에게 대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後輩가 先輩를 仰慕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은 하나 글은 짓지 아니하고, 믿기는 하나 옛을 즐기니 나에 比해서 老彭을 흠뻑했다』는 말투와 같다. 실사 先輩가 아니라 學生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린 學生에 대한 것이 아니라 老成한 高弟에 대한 것이다. 즉, 顏回·子路·曾子·點들과 같이 그의 나이가 孔子와 맞먹는 사람일 것이다. 황하 史記의 仲尼弟子列傳에도 左邱明이란 人物은 없다. 左邱明이 孔子의 弟子라 말하는 것은 아마 劉歆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일단 이것 또한 相關치 않겠다. 左邱明이 左氏로 지었다고 假定하자 그러면 그 記事는 孔子의 死亡時에 끊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면 그의 나이는 孔子보다는 얼마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現在의 左氏傳은 어떤가? 魯悼公·趙襄子の 謚號가 그에 이미 알려져 있다. 趙襄子는 魯悼公에 比해서 훨씬 늦게 죽었으니 바로 周의 威烈王 元年, 즉, BC 45年이다. 孔子의 年齡과 엇비슷했을 左邱明이 이때까지 生存해서 著述할 수 있었을까—이로서 左氏는 左邱明의 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가 있다. 左氏에 記錄된 豫言과 卜卦는 神奇하게 맞지 않는 것이 없다. 豫言은 本來 神奇한 것이 못 된다. 某種 現象에 대하여 銳敏한 觀察을 한 者는 恒常 將來의 現象을 맞힐 수 있다. 例컨대, 孟子는 『지금의 道를 따르면서 지금의 俗을 變치 않으면 비록 天下를 얻게 된대도 一朝에 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後에 秦始皇이 太子를 얻었으나 果然 오래 못가고 亡했다. 이것도 政治家의 豫言이 신기하게 맞은 것이라 하겠다. 다만 完全無缺할 수는 없을 것이다. 孔子는, 『天下에 道가 있으니 禮樂은 天子로부터 나와 征伐하

다. 天子는, 道가 없은즉 禮樂이 諸侯로부터 나온 것인가. 諸侯로부터 나왔으면 大概 10세에 하나도 잃음이 없을 것이다. 大夫로부터 나왔다면 5세에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陪臣이 國命을 잡으면, 三世는 잃지 않을 것이다. ……祿은 公室의 다섯대에 걸쳐 주었다. 政은 大夫 四세에 주었으므로 三桓의 子孫들은 微微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옳게 맞추지 못했다. 孔子 死後 140년에야 魯國은 滅亡했고 三桓의 子孫들이 魯의 政權을 掌握한 것은 4·5세가 지났다. 그런데 左氏는 어땠는가? 거의 모든 豫言이 반드시 適中되었다. 襄公 29년에 季札이 齊에 招聘되어서는 『齊國의 政權은 將次 歸屬될 바 있을 것이다.』라 하였고, 晉에 가서 韓·趙·魏의 三卿을 보고서는 『晉은 三族에서 뽑은 것인가』라 하였고 奇王은 나약한데 田氏가 專橫하였으니 銳敏한 政治家는 아마 將來의 結果를 豫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晋나라는 六卿이 並列되어 있는데, 그중 行·范·錡의 三卿이 가장 強했고 韓·魏·趙는 아직은 弱族이었다. 季札이 어찌 이만큼 큰 재주가 있어 韓·趙·魏가 반드시 晉國을 나누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斷定할 수 있었는가. 이처럼 딱 들어 맞는 豫言은 燒餅歌에 비해 보다 영험하기 그지없다. 政治家에게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卜卦의 靈驗은 모든 것 보다 더욱 높다. 예컨대, 莊公 22년의 記錄에 『懿氏가 妻 敬仲에 대해 占을 쳤는데 그의 妻의 占卦에 『吉하다. 이것은……有媿의 後라 하는 것이다. 將次 姜에서 길러지고 5세는 變창하다가 正鄉에 이를 것이며 8세뒤에는 더불어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뒤에 이것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맞았다. 아무리 迷信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疑心치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當然히 後史가 小說的인 맛을 집어 넣는 興味있는 叙述이다. 三家가 晉의 政權을 掌握하고 田氏가 齊를 篡탈하려는 것을 보고 氣분이 좋아서 통쾌한 얘기를 좀 해서 若干 默染한 것이다. 或은 아마 田氏와 三家가 그때 이미 先祖로 빛내는 業績을 이룬 뒤에 後史가 이것을 採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要컨대 本來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左氏란 이 책은 三家가 장차 晉을 나누어 가지려 하고 田氏가 齊를 篡탈하려고 하면서 아직 成功치 못했을 때의 產物이라 할 수 있다. 三家가 晉을 나누어 가진 것은 田氏가 齊를 篡탈하기 보다 좀 일렀을 때의 일로서 이 때는 BC 430年이다. 左氏를 만든 이는 아마 三家가 晉을 나누어 가진 것을 보지 못했던듯 하다. 그러므로 左氏가 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늦어도 BC 402年 即 周의 威烈王 23년에 지나지 않는다.

清華研究院에 있는 한 同學 衛聚賢군은 左氏를 研究하여 卓見을 發表하였다. 나는 그의 論을 이미 引用하

였지만, 이 밖에 또 가장 重要한 卓見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곧 『左氏』 두字의 解釋이다. 그의 말은 이것이 地名이며 人名이나 姓은 아니라는 것이다. 韓非子 外儲說에서 吳起는 衛國左氏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고 戰國策에도 左氏라는 地名이 있고 別錄에는 吳起가 일찌기 左氏를 傳했다는 말이 있다. 衛君은 이로서 左氏란 책은 吳起가 左氏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左氏라고 이름지어진 것이지 決코 作者의 姓이 左라서 左氏라 지은 것이 아니라 斷定했다. 이 말이 틀림 없다고 假定한다면 이 책은 果然 地名으로 부터 取해진 것이고 果然 吳起에서 傳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左氏가 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튼 吳起의 生前이다. 吳起는 周安王 21年 즉 BC 381년에 죽었다. 그렇다면 먼저 말한 主張을 放棄한다 하더라도 左氏는 역시 꼭 BC 381年の 前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해 보다 늦을 수 없는 것이다.

左氏는 어느 때에 비로소 通行되었을까? 晋나라 太康 2年 汲郡 사람이 魏襄王의 墓를 發掘하여 많은 책을 얻었다. 그 속에는 論語 師春 한 篇 그리고 書傳과 여러가지 卜筮가 있었다. 이에 依據하면 魏襄王 生前에 左氏가 通行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師春이 비로소 極히 微細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魏襄王은 周赧王 19年 즉 BC 296년에 죽었으니 左氏가 늦어도 이때까지는 通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以上 몇 段을 綜合해 보면 左氏가 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BC 425—403년까지 20餘年동안이고 通行된 것은 BC 296年以前이며, 作者가 누군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衛君의 말로는 子夏라 하지만 武斷을 할 수 없으며, 기껏 그럴 可能性이 있을 뿐이다.

第一問題 즉 左氏의 年代는 大概 위와 같이 決定되었다. 다만 今本 左傳은 左氏原本과 같은가,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後人들이 增竄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文公 13年 士會師晉의 一段 末尾에는 『그 處者가 劉氏이다.』라는 한마디가 있다. 위에서 分明히 말하거니와 『秦人이 그 妻子와 같이 돌아 왔다』고 하였으니 어찌 또 處者가 있을 것인가. 後人의 考證에 따르면 그 때는 아직 劉氏가 없었으며, 劉邦이 天下를 얻은 때에 가서야 비로소 堯를 祖로 認定했고 士會가 宗이 되었다. 左氏의 이 句節은 아마 漢人이 덧붙였을 것이다. 戰國初年の 作者는 劉氏皇帝를 받들면서 그에게 훌륭한 祖宗을 끌어 붙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것은 小節에 不過하다. 가장 主要한 것은 左氏가 春秋를 傳하지 아니한 問題이다. 今本 左傳에는 『即位라 쓰지 않고 攝(대신하다)이라 했다』라는 따위와 같이 經을 解說한 말은 眞자인가 假자인가? 今文·古

文의 論爭은 오로지 여기에 있었다. 漢字 劉歆傳에 밝히 말하기를『처음 左氏傳에는 古字와 古言이 많아 學者들은 訓詁하기만 했을 따름이다. 劉歆이 左氏를 研究함에 이르러서 傳文을 引用하여 經을 解釋하면서 서로 서로 發明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章句·義理가 갖추어진 것이다』라 하였다. 즉, 從前의 左氏는 決코 經을 풀이 하지 아니하였고 劉歆이 이르러서야 經을 解釋하였으니 其實 左氏는 一部 獨立된 眞書였으며 孔子의 春秋를 模倣하여 지은 것이다. 融通性없이 담담한 公羊·穀梁과 같지는 않았다. 그 뒤에 記錄된 事項은 어떤 것은 春秋에 比하여 數十年이 이르고 어떤 것은 春秋에 比하여 數十年이 늦다. 特히 傳의 事項도 叙述하였다. 그와 春秋를 校勘 對比해 보면 어떤 일은 저에 없고 이에는 도리어 펴 詳細하다. 左氏는 完全히 單行本이며 獨立的이요, 價値있는 史書임을 알 수 있다. 絶對로 春秋를 傳(풀이)한 것이 아니다. 經을 解釋한 말들은 劉歆이 꾸민 장난이다. 그는 그의 父親 一派의 今文家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春秋와 아무런 關係없으며, 西漢에서는 아무도 읽지 아니한 책을 찾아내어 그 뒤에 經을 解釋하는 말을 덧붙여서 公羊·穀梁 二家를 壓倒한 것이다. 後人들은 이를 잘 살피지 못하여 殆半이 그에게 속았다. 어떤 過激한 今文家는 또한 左傳은 完全히 劉歆의 僞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折衝說은 劉歆이 左傳을 僞造했다는 說을 承認할 수 없으며 左氏가 戰國初年의 사람의 지음임을 斷定할 수 있다.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左氏가 史學上에 있어 대단한 價値가 있으며 春秋의 情狀을 研究하고자 하려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되는 것, 또 이 책에 後人들이 增竄한 句가 있다고 하여 그의 價値를 떨어트릴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劉歆·杜預같은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 左丘明이 孔子의 뜻을 繼承하여 이 傳을 지어 春秋를 紹介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不可能하다. 萬一 우리들이 經을 解釋한 것이나 덧붙인 것을 모두 없애 버린다면(細密한 考證을 거친 後) 左氏는 一部의 眞書이다.

最後로, 左氏의 書名도 明白히 말해야겠다. 現在는 左傳이라고 通稱하고 있는데 其實은 絶對로 原名이 아니다. 原名은 다만 左氏春秋일 뿐이다. 孔子春秋, 虞氏春秋, 呂氏春秋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一家의 言說을 主張하는 것이다. 孔子가 春秋를 지을 수도 있고, 虞氏가 春秋를 지을 수도 있고, 呂氏가 春秋를 지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이 戰國初年 즉 BC 425—403年間의 作者도 春秋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春秋左傳은 劉歆이 杜撰한 名稱이며, 左傳은 後人의 그에 대한 簡稱이다. 그러므로 現在 左傳은 眞짜이나 (眞짜중에 약간 假짜도 있다.) 左傳이란 이 名稱은 假짜이다.

× × ×

公羊傳과 穀梁傳의 時代는 學官을 세운 順序에 따라 論하겠다. 公羊이 앞서 있었고 穀梁이 뒤에 있었다. 이 兩部의 책은 어느 때에 비로소 筆寫되었을까 作者는 公羊高와 穀梁赤이라는 說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時代의 人物인가 함은 斷定하기 어렵다. 孟子에 公明高라는 사람이 있는데 「明」, 「羊」은 같은 韻이므로 어떤 사람은 同一人이라 하지만 역시 推測에 지나지 않는다. 公羊의 이름이 高인지 아닌지, 穀梁의 이름이 赤인지 아닌지 두 책은 高·赤이 만들었는지 아닌지—모두 그렇지 않은 듯 하다. 現在 公羊傳에는 公羊子曰』이란 말이 있고, 穀梁傳에는 『穀梁子曰』이란 句가 있으니 책은 公羊子, 穀梁子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公羊子와 穀梁子는 또한 赤이라거나 高라고 分明히 말하지 않고 있으니 從來에 赤·高의 作이라 하는 말도 반드시 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公羊傳에는 또한 尸子도 있고 漢書 藝文志에는 尸佞가 있으니 同一人인가 萬一 同一人이라면 公羊傳은 商鞅以後에 이루어졌다. 大概 公羊은 齊派, 穀梁은 魯派로서 孔子以後부터 곧 各自가 口說로 傳해 내려 오다가 漢에 이르러 竹帛에 記錄된 것이다. 本來 西漢以前의 儒者들이 經을 傳(풀이)할 때에는 大部分 口述했다. 다만 公羊·穀梁은 왜 일찍이 竹帛에 記錄되고 있지 않고 漢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文字化되었는가? 經을 傳한 사람의 說에 의하던 孔子는 春秋에 暗中 恒常 當世를 稱讚하거나 貶論하였으므로 붓으로 쓰기에는 不便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弟子에게 말하였고 弟子는 代代로 口傳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文字化되지 못한 理由는 반드시 稱讚·貶論이 있을 때문인 것은 아니다. 아마 弟子들이 孔子가 春秋를 지을 때 斷定的인 見解와 主張을 듣고 이를 記憶해 뒀다가 그들 자신의 弟子에게 傳하여서 이리 저리 口傳된 것인데, 若干年이 지난 뒤 써낼 必要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것은 情理에 맞는 말이다. 公羊·穀梁에서 얘기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都大體 맞는지 안맞는지—이것은 아직 問題이다. 左氏는 眞實로 春秋를 傳하지 않았으니 公羊·穀梁은 곧 孔子의 本意를 잃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기에 公羊·穀梁은 한 時代의 產品이 아니다. 孔子以後로부터 즐곧 漢武帝·宣帝 때까지 이르도록 歷代의 儒者들이 各各 조금씩 자기의 見解를 그 속에 滲透시켰는데 그것이 크게 累積되자 한 두 사람이 나서서 그를 一部 編年體의 經을 解釋한 책을 썼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모두 孔子의 口授한 것이라고 말 하지만 도리어 彼此 恒常 矛盾·衝突되는 緣故는 곧 後儒들이 各各 조금씩 自己의 見解를 滲透하였

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 점을 理解하면, 董仲舒의 春秋繁露나 何休의 公羊註가 公羊傳·穀梁傳과 더불어 恒常 大同小異한데 대해서 비로소 놀라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公羊傳·穀梁傳의 眞僞와 年代 問題의 解答에 關하여 한마디로 總括해서 말한다면 이른바 眞僞의 問題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年代를 말하면, BC 481—136年 사이의 三百餘年에 비로소 책으로 쓰여졌던 것이다. 確實히 어느 時代라고 指摘할 必要는 없다. 우리들은 이것이 孔門의 後學들이 春秋에 대하여 研究한 成果의 總和라고 한다면 充分한 것이다.

第6章 論語·孝經·爾雅·孟子

이른바 十三經은 現在 이미 九種을 말했다. 나머지는 論語·孝經·爾雅·孟子的 四種뿐이다. 이 四種 중에서 가장 重要하며 가장 많이 問題되고 있는 것은 論語로서 지금 먼저 말하고자 한다.

1. 論語

論語는 比較的 가장 믿을 수 있다. 現在 孔子와 儒家의 學術을 研究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除外하고는 더욱 좋은 다른 책이 없다. 다만 그의 各篇 各章도 또한 分別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그것은 短時日內에 한 個人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漢書 藝文志에 『論語란 孔子가 弟子·時人들과 應答할 때, 弟子가 서로 이야기하고서 이를 夫子(孔子의 尊稱)에게 여쭙 말 들이다. 當時 弟子들은 各各 記錄한바 있었다. 孔子가 臨終한 뒤 門人이 서로 이를 모아 議論하면서 編纂하였다. 그러므로 論語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完全히 맞는 것은 아니다. 論語는 本來 一部分은 孔子 生前에 孔子의 弟子가 記錄한 것이지만 또한 一部分은 孔子 死後 數十年 乃至 百年 때 孔子의 弟子의 弟子들이 記錄한 것이다. 子 曾子만 홀로 『子』라 稱하고 其他 顏回·子夏 以下는 모두 『子』라고 稱하지 않고 있다. 즉 許多한 部分은 子 曾子의 弟子가 쓴 것이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孔子가 죽은 後 數十年만에 죽은 사람들의 謚號를 많이 일컫고 있다. 그것은 勿論 後代의 사람이 記錄한 것이다. 論語는 本來 系統的인 책이 아니다. 孟子와는 같지 않다. 孟子的 篇章은 모두 意義 있게 連結되어 있다. 아마 일찌기 孟子가 몸소 읽어본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大略 孔子의 弟子의 弟子가 編輯한 것으로 한 사람이 校閱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뒤에 와서 古論·齊論·魯論같이 들쭉 날쭉한 多寡가 있게 되었다. 이 점은 禮記와 비슷하다. 禮記도 孔門의 後學들이 孔子

및 그 弟子들 간에 있었던 言行을 追求한 것이다. 論語의 性質과 다를바 없다. 그러므로 大戴禮記 小戴禮記의 差이 있는 것이다. 다만 禮記의 年代는 더욱 늦었으며 取舍選擇에도 論語의 謹嚴性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또는 한 時代에 作成되지 아니한 책은 近代에는 없다. 이를 가져다가 比較해 보면 趣 興味있다. 例컨대, 王陽明의 傳習錄같은 것은 篇數는 不過 三卷이지만 年代는 도리어 數十年이나 된다. 가장 이른 部分은 王陽明의 38歲初에 敎를 처음 敎育으로 設置한 以後 數年內에 徐愛가 記錄한 것이고 가장 끝의 十分之三은 王陽明이 죽은 뒤 黃省曾등이 記述한 것이다. 앞의 十分之七은 王陽明 本集의 말과 相符되며 眞相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뒤의 十分之三은 『플·나무·기와·돌도 모두 「良知」가 있다』는 따위의 말들로서 王陽明의 說이 아님이 許多하다. 이점은 이미 劉蕺山·黃梨洲가 懷疑했고 또 證明했다. 傳習錄은 完全히 王陽明의 弟子들이 記錄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眞도 있고 假도 있다. 論語는 一部分만 孔子의 弟子가 記述한 것이고 그 나머지 大部分은 孔子의 弟子 또는 弟子의 弟子가 記述한 것이니 孔門의 眞相을 알지 않을 수 있겠는가? 論語에 있어 一部分만 孔子의 弟子가 記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決코 稀奇한 것이 아니다. 옛적에는 글자를 쓰기가 不便했으므로 오랫동안 傳해 내려 온 것이 許多하다. 數十年前에 들은 것을 數十年 뒤에 記錄하여 책을 만든 것이 있다. 論語가 大部分이 孔子의 弟子의 弟子(또는 그 弟子)가 記錄하게 된 것도 여기에 그 까닭이 있다. 이책이 이미 一人의 記錄이 아닌 이상 各各 틀리는 것도 當然하다. 마치 한 사람이 講演할 때 數十名이 이를 各各 받아 썼는데 講演한 사람이 이를 校閱치 않았다면 決코 混同이 있고 眞相을 傳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論語의 性質은 결코 純粹한 孔子의 것도 아니며, 純粹하게 어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는 口傳되어 이루어 점차 文으로 이루어지다가 最後에 가서 한책으로 된 것이다. 몇 사람의 主觀的 見解와 荒謬한 傳說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들이 이 점을 明白히 하고 論語를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책 속에 孔子의 眞意도 亦是 있고 孔子의 眞意를 얻지 못한 것도 있으며, 誤認과 不自然스러운 談論과 事蹟도 있으며, 原書에는 本來 없었던 것을 後人들이 딴 곳에서 듣고 생각나는대로 이 책의 空白에 써 넣은 것도 있다. 맨 끝에 말 한 것도 稀奇한 것이 못된다. 現在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淸初 衡陽의 王船山은 淸나라에 降服하여 辮髮하지 않으려고 深山幽谷에 도망쳐 들어 갔는데, 거기서 그는 종이를 얻을 수 없었을테니 著書가 나올 수 없어야 한다.

그가 죽은 뒤 家族들이 그의 著作을 찾았더니 영성한 대로 曆書·賬簿의 책머리나 글자 사이의 空白에 적혀 있었다, 近代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古代에는 竹簡에 글자를 썼으니 얼마나 번거로웠을 것인가? 지금은 조그마한 論語이나 古代의 竹簡으로서는 적어도 커다란 箱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古人들이 다른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들을 때 달리 새로운 竹簡에 쓰기가 귀찮으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책에 아무렇게나 써 넣었을 것은 道理와 人情에 맞는 일이다. 다만 王船山은 刻本상에 붓으로 글자를 썼으니 後인들이 刻本과 筆字를 區別하지 볼 수 있지만 世人들의 竹簡에 있어서는 먼저 쓰여진 것이나 나중에 쓰여진 것이 모두 같아서 分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恒常 하나의 完全한 책으로 認定되지 다른 글이 섞여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論語各篇의 末尾에는 거의 모두 一·二章이 아무런 相關 없는 말이 있다. 그것은 自然히 이러한 事情에서 책을 읽고 덧붙인 것이다. 不幸하게도 無識한 編者は 貪심이 많았으므로 後인들의 잘못 記入한 것이 荒謬하고 不自然한 것까지 모두 집어 넣었다. 즉 이와 같이 아무런 關係없는 것으로 空白에 아무렇게나 적어 넣은 것은 모두 들어간 것이다.

論語가 비록 이와 같이 混雜된 책일지라도 漢代부터 清代에 이르기까지 歷代로 重尊되어 왔다. 그의 力量은 學界에 있어 어느 책과 比할 수 없으리만큼 比重이 컸다. 그러므로 始終 아무도 敢히 懷疑하지 못했다. 거의 一字에 대해 論議한다 하더라도 「大逆不道」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나치게 尊重하였기에 도리어 그의 참다운 價値가 減損되었다. 後인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는 恒常 論語의 이러한 荒唐한 事實을 假託하여 聖人들도 오히려 이와 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런 짓은 하여도 아무런 方法이 없었으니, 참으로 可笑로운 일이다. 實은, 그렇게 지나치게 尊重하지 않고 學者들로 하여금 眞僞를 考定케 하여 그 馬脚을 들춰내게 했더라면 그들이 敢히 論語의 말을 假託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清代 乾隆 嘉慶年間 崔東壁은 곧 이러한 思想을 가졌다. 그는 論語를 힘껏 尊重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그는 論語의 精粹와 眞實에 대하여서는 모두 힘껏 이를 빛나게 했으나 論語의 잡 것이 섞인 部分에 대해서는 細心히 가려 냈다. 그의 이러한 態度와 그의 結論을 나는 모두 贊成하는 바이다. 이제 그의 意見을 한번 옮겨 보려고 한다.

崔東壁의 結論은, 論語의 前 10篇 즉 學而로부터 鄉黨에 이르기까지는 가장 純粹한 것으로 거의 모두가 金玉같이 貴重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後 10篇은 좀

差가 있으며, 特히 最後의 五篇은 가장 問題가 많다는 것이다. 子張篇은 全의으로 孔門의 弟子를 記述한 것으로 孔子의 言行은 아니니 論하지 않아도 된다. 季氏·陽貨·微子·賈曰에는 많은 部分이 眞書가 아니다. 그의 보는 方法은 몇 가지 種類가 있었다.

첫째, 文體로부터 보는 경우: 論語의 말은 가장 簡單하다. 『教育에 있어서는 類別(貴賤·善惡 따위)이 없다.』(有教無類) 一章이 겨우 6字로만 되어 있다. 많아야 100字를 넘은 일이 없다. 大部分은 二·三十字이다. 그러므로 뒷 部分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長篇·大論 즉 數百字의 것은 懷疑치 않을 수 없다. 『子路·曾皙·曾冉·公西華가 侍坐하여……』는 一章이 415字이고 『季氏는 將次 顓臾를 代하리라……』는 一章은 274字이다. 이러한 文體는 戰國初년에 와서야 비로소 있었던 것이며 孔子 當年에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論語의 筆法은 펴 直捷하였다. 正文 前面에는 序言이 없다. 前 10篇 乃至 15篇은 모두 이와 같은데 後 5篇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陽貨篇에, 『子張이 孔子에게 仁을 묻자, 孔子 말씀 하시기를 「나섯가지를 能히 天下에서 行할 수 있음이 仁이다」(子張이) 이를 묻자, (孔子가) 말씀하시기를, 「공손(恭)·관대(寬)·신용(信)·민첩(敏)·은혜(惠)이다……』라는 말이 있다. 가령 子張이 再次 묻지 않았더라면 그 內容을 몰라 答답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筆法은 逸周書에 이르러서야 많아졌다. 逸周書는 戰國시대의 産物이다. 論語 後 五篇은 春秋의 産物로 볼 수 없는 것 같다.

둘째, 稱號로부터 보는 경우: 論語 前 10篇에 弟子가 孔子에게 물을 때에는 다만 『子夏가 孝를 물었다』(子夏問孝)·『樊遲가 知를 물었다』(樊遲問知)고만 記錄했을 뿐 『子夏가 孔子에게 孝를 물었다』(樊遲問知於孔子)고 記錄한 것은 없었다. 묻는 것(問)은 弟子가 가서 묻는 것이요 「孔子에게 묻는 것」(問於孔子)은 孔子를 불러 들어 묻는 것이다. 弟子는 당연히 孔子를 불러들여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後 10篇은 그렇지 않다. 憲問篇에는, 『南宮适이 孔子에게 물었다』(南宮适問於孔子)는 말이 있다. 堯曰篇에는 『子張이 孔子에게 물었다』(子張問於孔子)는 말이 있다. 그리고 季氏篇에는 더욱 말도 通하지 않는 『冉有·季路가 孔子에게 보였다』(冉有季路見於孔子)는 말이 있다. 이러한 文法에 맞지 않는 稱號는 아마도 當時의 眞相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첫째이다. 前 10篇에서는 「孔子가 말씀하는 것」을 『子曰』이라 하여 또 다른바가 있다. 本來 稱號는 自由스러울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一時에 記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마 뒤에 와서는 『子』라고 呼稱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後 十

篇을 記錄한 사람은 孔子라는 글자를 덧붙여 分別한 모양이다. 이것이 틀째이다. 春秋時代 當時의 談話는 「夫子」라고는 부르지 아니하고 다만 「子」라고만 하였다. 마치 英語의 You와 같은 것이다. 先生이 學生을 부를 때나 學生이 先生을 부를 때 모두 「子」로 稱할 수 있는 것이다. 例컨대, 述而篇에서 孔子가 弟子를 일컫러 『二三子』라고 한 것과 같다. 그 때 先生을 비록 「夫子」라고도 일컬었으나 다만 前面에서 第三人稱으로 쓴 것이다. 예컨대, 公冶長篇에서 子貢이 『夫子的 文章』이라 말한 것, 八佾篇에서 儀封人이 『하늘은 장차 夫子로써 木鐸으로 삼으려 한다』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모두 英語의 he에 該當된다. 論語의 前十篇에서는 이 點에 關하여 原則과 符合되지만 後十篇——특히 前後의 十(譯註: 五의 誤記인듯)篇——은 그렇지 않다. 左傳속의 『夫子』도 原則과 符合되는 것이지만 戰國의 諸書는 그렇지 않다. 이로 미루어 論語의 後十篇——특히 最後의 五篇——은 大概 戰國時代에서 비로소 文章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넷째이다.——以上 세가지를 보면 結論은 꼭 같다.

셋째, 事實로부터 보는 경우: 論語의 記事에는 ick 우수한 部分이 있다. 가장 怪異한 것은 『佛肸이 불려, 孔子가 가려고 했다』는 一章과 『公山弗擾가 費에서 叛하고 부르거늘 孔子가 가려고 했다』는 一章이다. 이것은 앞서 總論 第4章(譯註: 第1章의 誤記)에서 이미 말했다. 左傳 定公 12년에 公山弗擾가 費에서 叛亂을 일으켰을 때에는 孔子가 바로 司寇——現在의 大法院長——도 있었으니 그 謀叛한 郡守는 힘이 기우려졌을 것이다. 情理로 말한다면 했다. 現職에 있는 閣僚가 郡守와 같이 謀叛하면서 費를 憑藉해서 자기의 政策을 實行하려 했겠는가? 佛肸이 謀叛한 것은 趙襄子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다. 趙襄子は 孔子 死亡後 5년의 사람이다. 佛肸이 무슨 神通力이 있어 墓속으로부터 孔子를 파내고 孔子는 또 무슨 妙術이 있어 죽은 뒤에 다시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二章은 後人이 孔子를 모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또 하나는 『季氏가 將次 顛臾를 伐하려 하다』는 一章에 『冉有·子路가 孔子에게 보였다』(冉有子路見於孔子)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文法的으로 통하지 않는다함을 前段에서 이미 말했거니와, 또 이것은 事實과도 틀린다. 冉有·子路는 本來 魯國의 官員을 지냈지만 先後가 틀린다. 子路는 나이가 많아 孔子와 同時에 官員을 지냈지만 冉有는 當時 어린이었다. 孔子가 晩年에 魯로 돌아오려고 하기 바로 前에야 비로소 官員이 되었다 左傳襄公篇에 季氏는 田賦를 增加시키려고 하면서 孔子가 元老였기 때문에 그의 弟子인 冉有를 시켜서 敎示를 받게 했지만 冉有가 세 번이나 質問했어도 孔子는 전혀 答하지 않았

다는 내용이었다. 그 때는 孔子가 天下를 周遊하다가 歸國했으므로 名聲이 멀쳐 이미 元老의 地位를 占有했던 것이다. 論語에 이 말은 아마도 이에도 影響을 받아 나온 듯 하다. 그래서 季氏가 孔子의 弟子를 시켜서 孔子에게 敎示를 請했다고 말한 모양이다. 그러나 이 두 弟子가 서로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생각이 내키지 못했다. 冉有가 官員으로 있을 때 子路는 이미 衛國에 가고 없었다는 事實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인데, 季氏가 顛臾를 치려했다는 事實의 根本도 만드시 眞이라고는 할 수 없다. 左傳에서는 兩國이 서로 싸웠으면 만드시 記述하고 있는데 季氏가 이미 顛臾를 征伐했다면 左傳에서 記述치 않았을 수가 없다. 孔子가 論語의 이 章에서 말한 顛臾의 얘기도 左傳에서 말하는 것과 는 틀린다. 이러한 몇가지 點을 綜合해 보건대 이 章을 만드시 믿을 수는 없을 듯 하다.

넷째, 學說과 思想으로 보는 경우: 論語도 어떤 部分은 틀린다. 예컨대, 『子路·曾皙·冉有·公西華가 侍坐하다』 一章에서는 孔子가 曾皙의 志趣를 稱讚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뒤에 宋學에서는 이 章을 가장 重히 여겨 周敦頤·程顥·陳獻章은 曾皙을 極히 贊揚하였다. 이 章은 勿論 僻 좋았다. 다만 孔子思想과는 도리어 十分 맞지 않았다. 孔子는 經濟實用을 가장 重히 여겼는데 이 章은 나라를 걱정하고 時弊를 求하러던 子路·冉有·公西華를 抑制하면서 厭世의이고 淸談을 즐긴 曾皙를 獎勵하였으니, 孔門의 思想體系로 보아서 分明히 衝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章은 自然히 믿을 수 없다. 또한 『長沮·桀溺이 穡을 지어 밭을 갈다』 一章과 같은 도피적인 思想이 극히 농후한 老壯의 色彩를 極히 濃厚히 띄었으니 春秋時代에 이런 思想이 있을 수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濃厚할 수는 없는 것, 특히 孔門에서 產出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章의 年代는 自然 이룰 수 없으며 莊子의 寓言의 境地에 가까운 것이다.

다섯째, 불속 나온 말의 경우: 論語에는 孔子 또는 孔門의 말이나 記事나 事實이 그 속에 많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論理的이 못된다. 堯曰篇의 都合 三章 369字 가운데 禹가 舜을 訓戒하고 舜이 禹를 訓戒한 一章 152字는 孔子나 孔門의 말이 아닐뿐 아니라 또한 孔子나 孔門과 關係있는 일이 아닌터에 이를 무엇하러 記述한 것인가? 後 數篇의 맨 末尾에 있는 이러한 따위는 거의 篇篇에 다 있다. 微工篇의 『逸民』, 『大師禁』, 『周公』 『周有八士』 네 章과 季氏篇의 『邦君之妻』한 章은 모두 아무 뜻이 없다. 또한 한 章은 孔子를 誣讒하고 孔子를 괴롭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雍也篇에 『孔子가 南子를 만나자 子路는 기뻐하지 않았었다. 夫子(孔丘)께서는 盟誓하시기를, 『내가 잘못

이 있다면 하늘이 버리시리라. 하늘이 버리시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불쑥 나온 말이며 孔子가 設使 南子를 맞나 보았고 南子가 비록 나쁜 君夫人이라 하더라도 子路가 언짢아 할 理由가 없는 것이며 孔子도 또한 盟誓할 理由가 없었던 것이다.

以上 다섯가지 경우를 綜合해 보면, 論語의 十中八九는 비록 精粹이지만 그 나머지는 어떤 部分은 荒唐無稽하니 모두 반드시 眞書는 아니다. 그러한 僞作의 來歷은 어떤가? 누가 增竄했는가? 勿論 孔子가 죽은 뒤로부터 戰國中葉, 末葉의 儒學者들이 增竄한 것이다. 孔子가 나약 죽자 그 弟子들은 일찌기 들었던 말들을 記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다만 口傳하기만 했던 것은 當然히 眞相을 잃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다가 後에 점점 文章을 만들어 썼다. 또한 한 사람의 作業이 아니었으니 여러 사람들이 각기 그의 主觀을 집어 넣게 된 것도 免하기 어려웠다. 또한 마침 道家의 思想들이 들끓었으므로 孔門의 弟子들은 自然 얼마마치의 影響을 받았었다. 그러므로 모르는 結에 『長沮·桀溺이 작을 지어 받을 갈고』와 같은 文章을 썼다. 이처럼 道家의 色彩를 띄고 있는 것은 比較的 늦게 나왔던 것으로 거의 孟子·莊子시절이었을 것이다. 또 저 荒唐無稽한 말들, 例컨대 『佛胷이 부르니 孔子께서 가시려고 하였다.』 따위는 戰國시대 中葉으로 미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때 실없는 政客들은 갈팡 질팡 하면서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엄마」라는 式으로 人格이 땅에 떨어졌지만 도리어 良心에 未安하고 惡罵로 받아내기 어려워 별수 없이 孔子의 영터리 일을 造作하여 집어 넣어 가지고 이를 갖다가 방패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孔子도 나와 같았다고 말하는 이 있었다. 또한 저 篇末의 怪事와 無關한 말들은 아마 한 두 諛者가 心血이 뻘쳐서 갑자기 다른 일이 생각나는대로 餘白에 새겨 넣는 것인데 後人들이 內幕을 모르고 그냥 보배처럼 여기면서 보잘것 없는 말에 큰 뜻이 숨었음을 研究했던 것이다. 그러나 萬一 이를 간파해 놓고 보면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것들! 또한 『孔子께서 南子를 만나 보시었다』는 따위도 뒤에 들어간 말이거나 혹은 好事家들이 어떤 傳說을 듣고서는 그 眞僞도 가리지 않고 덧붙인 것이다. 原來 책을 엮은 사람들이 意圖가 있어 이 章을 집어 넣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以上은 崔東壁이 推理해 낸 原因인데 大概是 잘 맞는 말이다.

論語는 雜 것이 섞인 책이라 함은 책의 傳授된 方面으로도 알아 낼 수 있다. 漢書 藝文志에 『論語는 古21篇, 齊22篇, 魯20篇』이라는 記錄이 있다. 앞에서 先秦시대부터 漢에 이르기까지, 儒家에는 齊派와 魯派가 있다는 말을 했다. 各經은 모두 大同小異하다. 그런데

魯는 모두 今文으로 古文과는 틀린다. 漢人이 傳한 세가지의 論語는 이미 亡佚되었고 다만 篇目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論語集解의 序에 『齊論語는 22篇, 그 20篇 중의 章句는 魯論에 찍 많다.……齊論語는 問王·知道가 있어 魯論보다 두篇이 많다. 古論에도 亦是 이 두篇은 없다. 堯曰篇의 2章 즉 子張問을 一篇으로 삼았으므로 두 子張篇이 있어 都合 21篇인데 篇은 齊論·魯論과 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들은 모두 各기 祖先들로부터 傳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各各 섞이지 않고 있다. 魯派의 思想이 比較的 바르며, 齊派의 思想은 玄學을 많이 言及하고 있다. 古論은 또 다르다. 萬一 三部의 論語가 오늘날까지 存在한다면 어느 것이 孔子의 참다운 모습을 그렸는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뜻 밖에도 西漢末에 張禹란 이가 三部를 갖다가 한 部로 합쳐버렸으므로 지금은 原本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없다. 張禹는 가장 福있는 사람으로 大官을 지냈으며 王莽을 만들어 모셨었다. 鄉愿(譯註: 한 村에서 君子 소리를 듣는 僞善者)의 氣質로 가득했던 사람이다. 그가 論語를 傳하는데 三部가 같지 않아 不便하였으므로 佚失禮스럽게도 自己의 뜻에 따라 合編시켜버렸다. 그가 깎아 버렸는지 아니한지 알 길 없다. 古論과 齊論에서 魯論에 비해 많은 部分은 모두 그에 依하여 魯論 20篇 속에 집어 넣어졌다. 그가 어떻게 改動시켰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없다. 아마도 前 10篇은 움직이지 않고 古論·齊論에서 魯論보다 많은 部分을 이를 나누어 魯의 後 10篇 속에 配置시킨 것 같다. 魯論의 原來의 篇次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도 알 수 없다. 우리들이 보기에, 子張篇은 全體가 孔門 弟子의 言行을 記述한 것이니, 從前에는 大概 魯論 맨 끝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前 19篇에서는 모두 孔子와 直接 關係가 있는 것을 記述했고 最後의 一篇은 孔子와 間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을 記錄했으니 棼 合理的이다. 現在의 論語는 子張篇을 도리어 第19에 두고 있으니 奇異하다. 아마도 堯曰篇은 곧 齊論의 問王·知道인 것 같다. 이 밖에도 古論·齊論이 들어 있을는지 모른다. 여기에 있는 것이 저기에 없고, 여기에 없는 것이 저기에 있는 것 따위도 모두 魯論 속에 補完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重複되는 것을 免할 수 없다. 魯論도 勿論 假자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比較的 切實하게 孔子의 眞相을 傳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孔子는 魯人이기 때문에 前 十篇은 大概 모두 原來 魯論에 있었던 것이고, 添加된 部分이 極少한 것이거나 篇末에 있을 것이다. 第19篇은 魯論의 最後의 一篇으로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16, 17, 18, 20은 아마 大部分이 齊論·古論이 섞여 있으므로 前 15篇과 더불어 棼 矛盾·衝突이 있는 것이겠다.

論語의 眞實와 年代問題는 위에서 大略 풀리었다. 子張篇은 魯論의 末篇이라는 것』과『篇末에 붙속 나 은 記事는 讀者가 마음대로 딴 것에서 옮겨다 論語의 餘白에다 메꾼 것』이라는 두個의 主張을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崔東壁의 말이다. 우리들이 만약 자세히 살펴서 眞實을 追求하려 한다면 가볍게 信用하기 보다는 차라리 많이 疑心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자상히 說明해 놓은 것으로는 洙泗考信錄이 있다.

2. 孝 經

孝經은 十三經의 一部로서 古人들은 그 通經(經義로 通하는 것)을 가장 重히 여겼다. 이런 經을 通하기는 가장 쉬운 것이다. 意義를 解釋하는데는 몇해 동안 공부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一經을 列擧한 것은 本來 至極히 可笑로운 일이다. 그의 文章을 論한다면 禮記와 一致된다. 禮記의 一部分같이 생각된다. 漢儒들은 讖緯를 무겁게 여기는데 孝經에 元神契가 있으므로『孔子의 뜻은 春秋에 있으며 行함은 孝經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孝經을 至極히 받들어 모시면서 이를 孔子의 作이라고 한다. 그러나 實은 이 책에 記述된 것은 孔子와 曾子가 問答한 말이니 孔子가 지은 것이 아닐뿐 아니라 또한 曾子가 지은 것도 아니다. 아무리 일러도 曾子의 門人때에 가서 지은 것이다. 文體로서 論한다면 禮記속에 넣으면 꼭 어울린다. 그의 年代는 꼭 오랜(古)것은 아니며, 戰國末에서 漢初에 비로소 나왔을 것이다. 經이란 이름은 從前에는 없었다. 漢書 藝文志에서도 끝에 붙이고 있었다. 西漢中葉에 비로소 이를 經이라고 불렀다. 莊子에, 『孔子는 十二經을 펴서 읽었다』는 句節이 있고, 墨子에 經上·經下篇이 있다. 맨 처음 經으로서 書名으로 삼은 것은 墨子·莊子時代였으며 孔子時代로 헤치고 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六藝를 六經이라 이름지은 것은 西漢 때부터이다. 孔子는 經으로서 書名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설사 漢人의 稱號를 따르다 하더라도 詩·書·禮·樂에 대해서는 經이라 할 수 있지만 論語·孝經에 대해서는 經이라 부를 수 없다. 論語·孝經은 傳記일 뿐, 經이라 불리기에 合當치 않다. 이 書名은 實로 대단히 그릇된 것이다. 孝字만 가지고서는 名詞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漢나라 以前에는 易·書·詩는 모두 단독으로 일컬어 질 수 있으나 孝經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推定할 수 있다. 즉, 戰國 때의 책이 아니라 漢代의 책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일러도 戰國 以前으로 올라 갈 수는 없다. 이 책은 孔子의 著述이 아니다. 다만 禮記에 집어 넣어 孔門 後學들이 孝字를 擴大시킨 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爾 雅

爾雅는 가장 오래된 訓詁書로서 뒤에 와서는 周公의 作이라는 말이 있다. 그 속에는『張仲이 孝友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張仲은 周 宣王 때의 사람이므로 이 책은 決코 周公의 作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解釋한 글자들은 大部分이 詩經의 것이다. 詩經의 殆半은 春秋時代의 作品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年代는 또한 詩經뒤에 오는 것이다. 釋地에 九州·五嶽을 풀이하였는데 이것은 本來 漢初의 地理이다. 그러면 비단 周公 때의 책이 아닐뿐만 아니라 孔子 以前의 책도 아니다. 그러므로 大概 이렇게 推定되었다. 즉 爾雅는 漢儒가 過去와 同時人들의 古書에 대한 訓詁를 抄錄함으로써 檢査에 便利케 한 책이다. 換言하면 一部의 아주 조잡한 字典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결코 獨立된 것이 아니다. 大戴禮記나 小戴禮記에 이미 한 篇이 있었던 것인데, 三國時代에 이르러 張揖이 廣雅表를 만들 때에도 또한『이는 帝劉에 이르러 魯人 叔孫通이 禮記를 지어 두었는데, 文은 옛것과 틀리지 않는다. 지금 世經에서 傳하는 三篇의 爾雅는 或者是 仲尼(孔丘)가 늘였다(增)하고, 或者是 子夏가 보탰다(益)하고, 或者是 叔孫通이 도왔다(補)하고 或者是 沛郡 梁文이 研究했다(考)고도 한다. 그러나 모두 解說家들의 說明, 先師의 口傳이어서 正證이 없다. 다만 聖人의 말씀이라 疑心스럽기는 하지만 이를 分明히 할 수는 없다.』 禮記는 最初로 叔孫通이 編纂한 것인데 爾雅는 當初에 그 一部分에 지나지 않았다. 現在 爾雅는 篇이 있지만, 모두가 當時에 있었던 禮記의 一部分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白虎通에 引用된 禮記의 말은 今本 禮記에는 보이지 않고 今本 爾雅의 釋○(譯註: 原闕)에 보이며, 孟子의 趙岐 註에 引用된 禮記의 말은 今本 禮記에는 보이지 않고 今本 爾雅의 釋○(譯註: 原闕)에 보이며, 風俗通에 引用된 禮記의 말은 今本 禮記에는 보이지 않고 今本 爾雅의 釋○(譯註: 原闕)에 보이며, 公羊傳의 何休註에 引用된 禮記의 말은 今本 禮記에는 보이지 않고 今本 爾雅의 釋樂에 보인다. 이 作品들은 모두 東洋 것인데 今本 爾雅를 보지 못했으니, 이로써 東漢 時代에 今本 爾雅는 通行되지 않았고 아직 獨立되지 않았고 禮記의 一部分이었음을 알 수 있다. 假令 今本이 이미 獨立·通行되었다면 그들이 왜 그것을 爾雅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 다만 그 때는 禮記속에 붙어 있었던 이상 篇幅이 今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今本이 많아진 것은 劉歆에 緣由되었으며, 劉歆이 비로소 이 책을 特別히 냈던 것이다. 한 번은 爾雅에 能通한 사람 1千餘名을 모아 廷中에서 각각 글자를 쓰게 하였으니 아마도 이때 爾雅가 비로소 龐大한

것으로 變했는지 모른다. 現在 一般 小學家(譯註:文字學者)들은 이 책은 아주 大端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甚至於는 여전히 周公의 作으로 看做하고 있다. 實은 西漢 사람들이 엮은 字典은 劉歆이 擴大한 것인데 周公과 무슨 關係가 있는 것인가? 이 책에 若干의 옛名物이 保存되어 있다 해서 經으로 삼을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古來로 字典은 屢 적었다. 그러나 西漢의 爾雅는 자연 東漢의 說文에 비해 못한 것이다. 說文은 比較的 體系가 있는데 爾雅는 特히 粗雜하다. 우리들이 애써 爾雅를 經으로 믿는다면 劉歆의 속임수에 넘어 가는 것이다.

4. 孟 子

孟子를 말함에 있어 우리들은 趙岐에게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史記·孟荀列傳에는 다만 孟子 七篇만이 있다. 그밖의 네 篇은 外書로 삼는다. 劉向·劉歆은 正式으로 이 11篇은 認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漢書藝文志에는 孟子 11篇이 있게 됐다. 東漢末에 이르러 趙岐가 孟子에 註를 달아 銳利하게 말하였는데 『外篇은 그 말이 間深치 못하니』 孟子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여 잘라 버리고서 註를 달지 않았다. 뒤에 僞作의 外篇이 亡佚되었으나 조금도 아까운 것 없다.

지금에는 拜經樓叢書속에 또 나타나 있으니 이것은 곧 明의 姚士粦의 僞作이며 아무런 價値가 없다. 孟子는 처음부터 子書였으니 諸子(의書)를 말할 때 말해야 할 것이다. 다만 諸子를 말할 時間이 없고, 또 宋나라以後 모두 孟子를 經으로 삼아 왔으므로 그냥 便利할대로 經을 말하는 部分의 邊에서 좀 얘기 해 두는 것이다. 그의 年代에 대해서는 問題가 없다. 즉 아마 孟子의 弟子가 엮은 것으로서 일찌기 孟子가 읽어 보았을 것이다. 現行 七篇에는 僞作이라 疑心할 處는 없다.

× × ×

여러가지 事情으로 總論과 各論의 經部밖에 말하지 못했다. 子部를 講義하지 못한 점은 가장 애석히 여긴다. 그것은 子部에 僞書와 年代不明의 책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다시 講義하게 될 機會있기만 바란다.

<以上 두 卷은 民國 16年12월부터 6월까지 北京 燕京大學에서 講義한 內容이다.>

專門委員會 活動 現況

本協會 專門委員會에서는 各 分科委員會 別로 여러 차례의 會議를 갖고 우리 館界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研究, 調査, 檢討하는 한편, 바람직한 館界 發展을 위해 여러 가지 事業을 計劃하고 積極的인 活動을 始作하고 있다.

<行政分科委員會>

同 分委에서는 지난 6月 26日(木) 第1次 會議를 갖고 韓國圖書館協會 獎學會의 設置 등 우리 館界가 갈망하던 몇가지 일들에 대하여 具體的인 協議를 하여 다음과 같이 決定하였다.

1. 韓國圖書館協會獎學會 規定(安松山委員 擔當)
2. 韓國圖書館學會 規定(尹汝澤委員 擔當)
3. 圖書館法 改正 問題(李承周, 鄭賢湜委員 擔當)
4. 圖書館 國家計劃案
5. 任員 選舉方法 再檢討(金榮朝, 尹英吉委員 擔當)
6. 圖書館人 人名錄 書式作成(趙昇東, 尹煥委員 擔當)

<教育·調査分科委員會>

10餘年 以上 자라온 우리 나라 圖書館學 教育에 對한 實態를 分析하고 反省할 必要性을 認定하고 이미 3회에 걸친 會議를 갖고 韓國 大學에 있어서의 圖書館學教育實態調査分析을 實施中에 있다.

<分類 및 目錄 分科委員會>

兩 分委에서는 現在 使用中인 KDC 및 KCR의 修正을 위한 作業을 委員들이 分擔하여 推進키로 하였다. 특히 分類表에 古書分類에 對한 統一을 期하여 本表에 挿入하는 일을 研究 檢討키로 하였고 目錄規則에 있어서도 古書目錄法과 非圖書資料 및 排列 規定도 追加하도록 하고 7月末까지는 全體的 檢討를 마치고 8月 1日 부터는 分擔作業에 着手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2年後에는 KDC와 KCR의 改定版이 나오게 될 것이다.

<用語分科委員會>

우리 나라에 새로운 學問으로서 圖書館學이 도입된 지가 10餘年이 넘었고 그동안 飛躍的인 發展을 해 왔다. 따라서 우리의 常用하는 用語의 統一을 期하고 正確한 概念을 세우므로써 圖書館事業과 圖書館學의 發展을 期하고자 協會에서 지난 1966年에 「用語集」을 發行한 바 있다.

그러나 나날이 도서관과 도서관학이 發展 普及되어 감에 따라 補完 및 改定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어 今番 用語分委에서는 Documentation에 관한것도 挿入하여 보다 더 充實하고 完璧한 用語集을 編刊키로 하고 이미 檢討作業에 着手하고 今年末까지는 새로운 用語集의 原稿作成이 完了될 것이다.